

노년부부가구 남편과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

김정석** · 최형주***

노년기는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시기보다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커진다. 따라서 생애주기상의 다른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다차원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남편과 부인 두 사람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특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는 개인과 배우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남편과 부인이 서로에게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비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순서형로지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편의 만족도는 부인의 특성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체로 자신의 특성에만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본인의 특성뿐 아니라 남편의 특성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부인들의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을 의미하며, 여성들의 가족중심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핵심단어: 노년기 부부, 부부관계 만족도, 남편과 부인 비교, 순서형로지분분석

I. 서론

부부관계는 어느 시기든 중요하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노년기는 가족생활주기상 부부만 남게 되는 이른바 '빈둥지 시기'로 특징 지워진다. 모든 자녀가 독립하고 오랜 직장생활에서 은퇴하는 등의 이유로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부부간 역할 재정립은 노년기 부부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빈둥지 시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점차 늘어나며, 삶의 중심이 부부관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38).

**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교수(교신저자) | chkim108@dongguk.edu

***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대학원 | allblue4@naver.com

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자녀와 동거하기보다는 부부끼리 지내는 노년부부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본다면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

최근 황혼이혼의 급증도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전체 이혼건수는 다소 감소한 반면, 중고령층의 이혼은 2006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동거기간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 중에서 23.8%를 차지한다. 2010년 현재 이혼한 남성중 50세 이상 비율은 28.3%, 이혼한 여성중 50세 이상 비율은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0). 이처럼 노년기에 이혼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해 다른 시기에서의 부부관계만큼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 부부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배우자 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의 충족 정도에 대한 평가로써, 노년기 부부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노년기 이전 시기의 부부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비해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노년기 부부간 결혼 만족도나 관계 만족도를 다룬 연구들이 다소 있다. 여기에는 연령대별 비교를 통해(이여봉, 2010; Patrick et al., 2007; Yorgason and Booth, 2008) 혹은 노년층에 한정하여 부부관계를 접근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개인의 특성, 즉 남편이나 아내의 특성만을 중심으로 부부간 관계만족도를 접근하고 있다(서병숙·김수현, 2000; 이윤로·유시순, 2004; 홍달아기·이남주, 2005; 권오균·허준수, 2010; Moen et al., 2001). 또한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비교하기보다는 여성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노년기 부인들의 만족도를 접근하기도 한다(김미혜 외, 2007; 양영순, 2009; 유시순, 2009; 정순돌·김고은·김정원, 2011).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특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남편과 부인의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데 한계를 가진다.

부부간 관계 만족도는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지만, 배우자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노년기 이전의 부부나 맞벌이 부부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조혜선, 2003; 김은지·박재호, 2010; Kaufman and Taniguchi, 2006; Luo et al., 2008, Helms et al., 2010). 노년기 부부관계 만족도 역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 또한 남편과 아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

성이 매우 높다(조혜선, 2003).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배우자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부부관계 만족도를 살펴보고, 남편과 부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문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시도는 노년기 부부간 관계 만족도에 대해 보다 풍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개념적 고찰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노년기 부부관계 만족도가 개인의 연령, 학력, 건강상태, 취업상태, 사회활동 및 종교 등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거주지,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 자녀와의 관계 등도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부관계 만족도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상태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을 해 본다면 배우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의 변수들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경험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 각각의 변수들이 갖는 영향력은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노년기 부부관계 만족도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사회참여 등에 의해 차이를 보인다. 한편, 부부간의 지원교환 이외에도 노년기의 부부관계에는 자녀와의 지원교환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기 부부의 관계 만족도에 초점을 두는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이다.

우선, 노년기 부부에게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특성으로 건강을 들 수 있다. 다른 생애주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건강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짐작은 쉽게 가능하다. 그런데 본인의 건강 뿐 아니라 배우자의 건강상태 또한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 자신들의 건강보다는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현상은 남편보다는 부인에게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Yorgason and Booth, 2008).

취업상태 또한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편과 부인의 소득여부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핀 연구(김현주, 2003)에 의하면, 남편의 만족도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소득이 없는 경우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년기 취업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면, 이러한 역할수행은 결혼만족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년기 취업이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면 이는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기 부부관계 만족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사회활동 참여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 둘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부부가 얼마나 사회활동에 같이 참여하는지, 여가시간을 같이 보내는지를 주로 다루며, 사회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빈도와 시간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Johnson and Zabriskie, 2006). 한국 노인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참여 모임의 수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유시순, 2009).

노인들의 종교와 동거기간 역시 부부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기도 하나, 이 두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홍달아기·이남주(2005)는 종교를 가지는 것이 결혼 만족도 요인인 신뢰와 친밀감을 높인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들은 동거기간, 즉 결혼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신뢰와 친밀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하기도 한다.

가족관계 요인으로 자녀로부터의 지원과 배우자로부터의 지원도 부부간 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노년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성인자녀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개인에게 심리적 만족을 줄 수 있다(이윤로·유시순, 2004). 노인들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와의 애정결속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서병숙·김수현, 2000)는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이 부부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부부가구에 주목하고 있지만, 따로 살고 있는 자녀 또한 노인들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로부터의 도움여부를 함께 살펴보았다.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부부관계에 미칠 수도 있는 자녀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부부가구만 선택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부관계를 자녀와의 관계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는 없다. 따로 살고 있는 자녀는 노년부부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녀의 도움여부를 고려하였다.

부부간 정서적, 도구적 지원의 상호교환은 부부간 관계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Patrick et al., 2007). 특히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유시순, 2009), 정서적 지원교환의 유무에 따라 부부간 관계만족도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년기에는 남편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었던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부부

관계가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역할분담은 남성보다도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주로 여성의 몫으로 간주되었던 가사에 대한 부담이 노년기에 남편과 어느 정도 분담되면서 부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Xu and Lai, 2004).

Ⅲ.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0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15,1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이다. 전국 규모의 사회조사로서, 다단계 층화 집락추출을 통해 비교적 대표성 있는 표본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대표성 외에도 노인의 가족관계를 포함해 노인생활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으므로 본 연구 분석에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부부간 관계 만족도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부부'단위로 재구성하였다. 우선 부부가구유형에 속하는 개인들을 추출하고, 가구 고유번호와 가구주와의 관계를 이용해 남편과 부인을 파악하고 이들을 한 사례로 결합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추출된 사례는 1773사례이다. 이들 사례 중 분석에 사용된 문항에 하나라도 응답을 하지 않은 57사례를 제외한 1716사례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노년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남편과 부인만을 선택한 이유는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가족원, 특히 자녀 혹은 손자녀의 효과를 어느 정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의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이들의 사례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5점 척도의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중에서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등에 속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들을 한 범주로 묶었다. 한편,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하는 편이다'라는 범주는 사례수가 풍부할뿐더러 그 범주간의 차이를 살리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와 '그 이외'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남편이 14.9%, 부인이 11.7%로 남편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그저 그렇다

<표 1> 변수와 사례분포 (n=1,716)

변수	남편(%)	부인(%)	변수	남편(%)	부인(%)
배우자 관계 만족도			종교		
매우 만족	14.9	11.7	불교	25.9	37.6
만족하는 편	70.6	65.7	기독교	16.4	22.1
그저 그렇다 등	14.5	22.6	천주교	5.4	8.1
연령			종교없음	52.3	32.2
60세 이상~65세 미만	7.8	26.2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		
65세 이상~70세 미만	28.3	34.1	지원 받음	74.1	80.1
70세 이상~75세 미만	33.3	25.9	자녀로부터 가사도움		
75세 이상~80세 미만	20.1	9.8	도움 받음	39.6	45.3
80세 이상	10.6	4.0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		
학력			지원 받음	95.4	92.7
무학	12.6	26.5	배우자로부터 가사도움		
초등학교	40.1	50.8	도움 받음	95.3	67.5
중학교	17.9	11.7			
고등학교	17.6	8.3			
대학교 이상	11.8	2.7			
건강상태					
건강한 편	48.1	37.5			
건강하지 않은 편	51.9	62.5			
취업여부					
취업	43.9	36.0			
비취업	56.1	64.0			
사회활동 참여					
참여하지 않음	24.1	20.3			
1개 참여	45.6	38.8			
2개 이상 참여	30.3	40.9			

거나 만족하지 않는 편이라는 비율은 남편이 14.5%, 부인이 22.6%로 부인에게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난다.

대상자들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5세 간격으로 연령대를 정리하였다. 최상위 연령층을 80세 이상으로 묶으므로 총 5개 구간의 연령대가 형성되었다. 연령분포에서 남편보다는 부인들이 낮은 연령층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사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결혼연령차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면에서도 남편보다는 부인들이 저학력층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이용하였고 이를 건강한 편과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이분하였다.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편이 48.1%, 여성이 37.5%로 나타난다. 취업여부는 '지난 1주일간 1시간이라도 수입

(현금·현물)을 목적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배우자/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돈을 받지 않고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접근하였다. 취업중인 비율을 보면, 남편은 43.9%, 부인은 36.0%로 남편에게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취업률은 농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활동 참여정도는 친목단체(계모임, 동창회, 동기회, 향우회, 종친회, 노인정 등),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합창단, 연극 등), 스포츠레저단체(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 이익단체 및 정치단체, 봉사단체, 학습단체(노인대학, 노인교실,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등 설문지에 제시된 항목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의 개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 참여정도를 ‘참여하지 않음’, ‘1가지 활동 참여’, ‘2가지 이상 활동 참여’로 나누었다. 남편들은 아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부인들에게서는 2가지 이상 활동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대체적으로 남편보다 부인이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는 크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없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응답지 중의 하나였던 원불교는 사례수가 2~3개로 많지 않아 불교에 포함시켰으며, 기타 종교 역시 사례수가 극소수에 불과해 종교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사례분포를 보면 남편의 무교 비율은 52.3%, 부인은 32.2%로 부인이 남편보다 종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기독교, 천주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따로 살고 있는 자녀(혹은 그 배우자)로부터 응답자가 정서적인 지원이나 가사도움을 어느 정도 받는지를 의미한다. 정서적인 지원은 ‘(현재부터 1년 전까지) 따로 사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나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들어 주었다’라는 문항을 통해, 가사도움은 ‘(현재부터 1년 전까지) 따로 사는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청소, 식사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포함), 세탁 등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조사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남편과 부인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는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정서적 지원이나 가사도움이 있었는지 여부로 이분하였다.

배우자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가사도움 또한 자녀로부터의 지원과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남편과 부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역시 지원이나 도움여부만을 살펴보고 있는데,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은 비율에서는 남편과 부인간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

로부터 가사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에서는 남편이 95.3%, 부인이 67.5%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거주지와 동거기간은 부부 공동에 관한 항목이다. 이 항목 역시 부부 각자에게 질문되고 있으나, 자료 분석 결과 부부간의 별 다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남편 응답을 기준으로 한 결과, 동부에 거주하는 부부의 비율은 61.8%였다. 동거기간에서는 40년 미만 동거한 비율은 11.4%였으며, 55년이상 동거한 비율은 16.6%이다.

IV. 노년기 부부간 관계 만족도 분석결과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지 않는 편, 그저 그렇다거나 만족하지 않는 편이라는 세 가지 서열형 범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순서형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2>는 그저 그렇다거나 만족하지 않는 편을 준거집단으로 한 순서형로짓모형의 회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처음의 두 모형은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 나중의 두 모형은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관한 것이다.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우선 남편의 특성만을 고려한 모형을 제시한 후, 부인의 특성을 더한 모형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다.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확장모형은 응답자 본인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특성이 얼마나 유의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남편-모형1>에 의하면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본인의 학력, 건강상태, 사회활동 참여정도, 종교,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남편은 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이 건강할수록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또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남편들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다. 종교의 경우, 불교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예상과는 달리 불교를 믿는 남편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남편들에 비해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은 남편들이 그렇지 않은 남편들에 비해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남편-모형1>에 부인의 특성을 추가한 <남편-모형2>에 의하면,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본인의 학력, 사회활동 참여정도,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의 효과는 사라진다. 본인의 건강상태와 종교(불교)의 효과는 다소 설명력이 약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의한 수준을 유지한다. 부인의 특성 중에서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부인의 학력, 부인의 정서적 지원과 가사도움을 들 수 있다.

<표 2> 배우자 관계 만족도에 대한 순서형로지계수와 표준오차 (n=1,716)

	남편-모형1		남편-모형2		부인-모형1		부인-모형2	
	b	s.e.	b	s.e.	b	s.e.	b	s.e.
제1한계치	-1.345	0.275	1.029	0.407	-0.776	0.249	0.822	0.334
제2한계치	2.251	0.281	4.760	0.423	2.564	0.259	4.445	0.352
본인 연령 (5구간)	-0.028	0.067	0.005	0.080	0.127*	0.070	0.247***	0.085
본인 학력 (5구간)	0.114**	0.047	0.052	0.062	0.290***	0.060	0.214***	0.077
본인 건강상태 (준거: 건강하지 않음)	0.300***	0.111	0.251**	0.117	0.104	0.110	0.008	0.116
본인 취업여부 (준거: 비취업)	0.021	0.122	-0.009	0.139	0.081	0.122	-0.056	0.141
본인 사회활동 참여 (준거: 참여하지 않음)								
1개 참여	0.175	0.137	0.068	0.148	0.299**	0.143	0.020	0.154
2개 이상 참여	0.368**	0.167	0.260	0.182	0.071	0.162	-0.292	0.180
본인 종교 (준거: 종교없음)								
불교	-0.323**	0.135	-0.280*	0.167	-0.348**	0.139	-0.292*	0.166
기독교	-0.221	0.162	-0.296	0.234	-0.182	0.155	-0.066	0.216
천주교	-0.316	0.248	-0.236	0.378	-0.552***	0.212	-0.861***	0.313
거주지 (준거: 농촌)	0.071	0.122	0.128	0.130	-0.053	0.120	-0.087	0.127
동거기간 (5구간)	-0.017	0.057	0.023	0.067	-0.074	0.061	0.003	0.065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 (준거: 지원받지 않음)								
지원 받음	0.210*	0.126	0.011	0.129	0.190	0.132	-0.018	0.137
자녀로부터 가사도움 (준거: 도움받지 않음)								
도움 받음	-0.009	0.110	-0.046	0.112	-0.014	0.105	-0.159	0.110
배우자 연령 (5구간)			-0.012	0.087			-0.197**	0.077
배우자 학력 (5구간)			0.147*	0.079			0.053	0.060
배우자 건강상태 (준거: 건강하지 않음)			0.195	0.120			0.367***	0.114
배우자 취업여부 (준거: 비취업)			0.186	0.145			0.067	0.136
배우자 사회활동 참여 (준거: 참여하지 않음)								
1개 참여			0.034	0.161			0.473***	0.142
2개 이상 참여			-0.009	0.187			0.667***	0.177
배우자 종교 (준거: 종교없음)								
불교			-0.085	0.172			-0.172	0.161
기독교			0.024	0.224			-0.276	0.225
천주교			-0.172	0.324			0.395	0.367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 (준거: 지원받지 않음)								
지원 받음			2.003***	0.254			1.351***	0.205
배우자로부터 가사도움 (준거: 도움받지 않음)								
도움 받음			0.451*	0.259			0.796***	0.117
LR χ^2 (df)	39.41 (13)		127.25 (24)		51.34 (13)		240.84 (24)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해 남편의 학력보다는 부인의 학력이 보다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조심스레 해석될 필요가 있다. 우선 남편과 부인의 평균적인 학력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부부간에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의 학력은 통계적인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인들에게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적기 때문에 모형추정식에서 이 부인들의 교육이 보다 민감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가사도움은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뚜렷한 효과를 가진다. 특히 부인의 정서적 지원은 남편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진다. 부인으로부터 가사도움을 받는 것의 효과도 유의한 수준이나, 정서적 지원만큼 두드러지지 않는다. 아마도 남편은 가사가 부인의 몫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기대와 부인의 가사노동을 당연시 생각해왔기 때문에, 부인의 가사노동이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모형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부인-모형1>은 부인 본인의 특성만 고려하였다. 이에 의하면, 부인의 만족도는 본인의 연령, 학력, 사회활동 참여정도, 종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부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사회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부인보다 1가지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부인에게서 남편과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다. 한편, 종교를 갖지 않은 부인에 비해 불교 혹은 천주교라고 답한 부인들에게서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가 낮다. 이와 같은 종교의 효과는 앞서 살펴본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노년기 부부들 중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노인들이 종교에 의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남편의 특성을 함께 포함한 <부인-모형2>에서, 부인의 사회활동참여효과는 그 유의성이 없어지지만 연령, 학력, 종교의 효과는 여전히 있다.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는 부인의 이러한 특성 이외에도 남편의 여러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남편의 연령, 남편의 건강상태, 남편의 사회활동 참여정도, 남편으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과 가사도움 등이 포함된다.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또한 남편이 건강하면,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도 높아진다. 부인 본인의 건강보다는 남편의 건강이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남편이 건강하지 않을 경우 부인이 가구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거나, 남편에 대한 간병과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보인다.

남편이 사회활동을 활발히 참여할수록 부인의 관계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 경우도 부인 본인 보다는 남편의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남편의 사회활동 참여가 빈번하다는 것은 남편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노년기 부부의 갈등이 남편이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활동 참여는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줄여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가사도움은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인 지원과 가사도움은 이를 제공하는 배우자에 대한 관계 만족도를 높이며 이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에게 정서적 지원과 가사도움의 효과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남편과 부인이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분명하다.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의 경우, 부인의 학력만이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남편의 연령, 건강상태, 사회활동 참여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남편에 비해 부인들이 갖는 부부관계 만족도가 배우자의 상태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에서 발견된 건강상태의 효과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부인의 건강상태와는 무관하며 본인의 건강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해 부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보다는 남편의 건강상태에 따라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진다. 노년부부가구에서 남편의 몸이 불편해지면, 대체로 경제상황이 악화된다. 이 경우, 부인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간병과 보호제공의 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부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남편보다는 자녀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 간병과 보호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자녀와 동거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결국 이는 노년부부가구의 변용을 동반한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의 특성과 배우자의 특성으로 구분하고, 또한 남편과 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부인 보다는 본인의 특성에 따라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특성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노년부부가구에서 남편보다는 부인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배우자에게 더 의존적임을 의미한다.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노년부부가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노년부부가구에서는 이전의 어떤 시기보다, 그리고 다른 가구형태보다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특히 황혼이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욕구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노년기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적어도 남편과 부인을 동시에 살펴보고 대조해보는 연구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부관계 만족도가 부부간의 기대와 이에 대한 충족정도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간의 기대를 보여줄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로는 흔히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관'이나 '성역할기대'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조사자료의 한계로 인해 부부간의 기대를 보여줄 수 있는 사회심리학적 변인들을 활용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을 충실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종교변수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연구들은 종교가 부부간 관계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오히려 종교와 부부관계 만족도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부관계 만족도를 비롯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노인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종교와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거성인자녀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노년부부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노년부부는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년부부에 비해 건강, 경제상태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본 연구가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느니 만큼 이 문항에 대답할 수 있는 노인들로 분석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노년부부가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결과물을 다양한 가구형태의 노인에게 확장하는 데는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오균·허준수 (2010)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7: 7-30.
- 김미혜·김정원·백명희·송혜미 (2007) “남편이 은퇴한 여성 노인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384-416.
- 김은지·박재호 (2010) “부부간 유사성 및 일치도가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03-423.
- 김현주(2003) “부부의 경제 및 가사역할의 수행과 인식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가족과 문화》 15(1): 97-130.
- 서병숙·김수현 (2000)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0(1): 55-67.
- 양영순 (2009) “남편의 은퇴준비도와 아내의 결혼만족 관계에 관한 연구-은퇴자 아내가 인지하는 자원보존감과 스트레스 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7: 5-34.
- 유시순 (2009) “여성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6(1): 123-140.
- 이여봉 (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33(1): 103-131.
- 이윤로·유시순 (2004) “노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1): 1-21.
- 정순돌·김고은·김정원 (2011) “은퇴한 배우자를 둔 중고령 여성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1): 137-155.
-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 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8(1): 91-115.
- 홍달아기·이남주 (2005) “결혼만족도와 노년기부부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중·노년기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883-898.
- Helms, heather M., Jill K. Walls, Ann C. Crouter and Susan M. McHale (2010) “Provider Role Attitudes, Marital Satisfaction, Role Overload, and Housework: A Dyadic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5): 568-577.
- Johnson, Heather A., Ramon B. Zabriskie and Brian Hill (2006) “The Contribution of Couple Leisure Involvement, Leisure Time, and Leisure Satisfaction to Marital Satisfac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40(1):

69-91.

- Kaufman, Gayle and Hiromi Taniguchi (2006) "Gender and Marital Happiness in Later Life" *Journal of Family Issues* 27(6): 735-757.
- Luo, Shanhong, Hao Chen, Guoan Yue, Guangjian Zhang, Ruixue Zhaoyang and Dan Xu (2008)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from Self, Partner, and Couple Characteristics: Is it Me, You, or Us?" *Journal of Personality* 76(5): 1231-1266.
- Moen, Phyllis, Jungmeen E. Kim and Heather Hofmeister (2001) "Couples' Work/ Retirement Transitions, Gender, and Marital Qualit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4(1): 55-71.
- Patrick, Shawn, James N. Sells, Fran G. Giordano and Toni R. Tollerud (2007) "Intimacy, Differentiation, and Personality Variable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The Family Journal* 15(4): 359-367.
- Xu, Xiaohu and Shu-chuan Lai (2004) "Gender Ideologies, Marital roles, and Marital Quality in Taiwan" *Journal of Family Issues* 25(3): 318-355.
- Yorgason, Jeremy B. and Alan Booth (2008) "Health, Disability, and Marital Quality: Is the Association Different for Younger Versus Older Cohorts?" *Research on Aging* 30(6): 623-648.

Satisfaction on Marital Relationship of Husband and Wife in Old Age

Cheong-Seok Kim · Hyung-Ju Choi

The prolongation of life expectancy has expanded the duration of marriage in old age. In the meanwhile, the change of life style emphasizing privacy and sociodemographic environment favoring independent living has increased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the elderly living with spouse only. This study, focusing on those aged 60 and over who live with spouse only the elderly, explores their marital relationship. The study pays a special attention to compare whether and how th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with spouse would differ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ordered logit model analysis is conducted based on the nationwide survey '2008 Korean National Survey of Welfare Need in the Elderly'. The results show that the marital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husbands is influenced by their own characteristics but hardly affected by his wife's. In contrast, the satisfaction of wife is influenced by husband's characteristics as well as hers. These finding reflect that women are more strongly family-centered and dependent on their husband.

Key Words: Elderly couple, Marital relationship, Husband and wife, Ordered logit model